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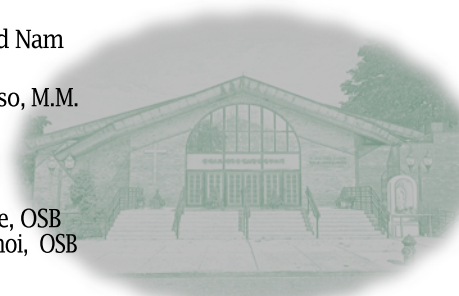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t. Paul Chong Ha-Sang Roman Catholic Church

32-15 Parsons Boulevard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676 | Fax: 718-321-7005 | Web: StPaulQueens.org | Email : Office@stpaulqueens.org

연중 제19주일

2020년 8월 9일(가해) 2486호

Pastor Rev. Andrew M. Kim
Parochial Vicar Rev. Hee Bong Bernard Nam
Director of Faith Formation Rev. Joseph R. Veneroso, M.M.
Permanent Deacon Paul M. Chin
John S. Im
Pastoral Assistants Sr. Mijeong Agapita Lee, OSB
Sr. Eun Young Unitas Choi, OSB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주 임 신 부 김문수 앤드류
보좌 신부 남희봉 벨라도
보좌 신부 배중섭 요셉
종신 부제 진명 바오로
임석원 요한
전교수녀 이 아가비타 OSB
최 우니파스 OSB
사목 회장 한해남 요셉
재정위원장 홍성우 바오로

입당성가 72번 다불 산의 예수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74번 사랑의 신비

파견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화답송 시편 85(84), 97-102과 10.11-12.13-14 (©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화답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토요 특전 미사	양만석	이태희	조은경
8시 미사	윤정애	박만선	정춘홍
11시 미사	황성숙	정기형	김재국
5시 미사	이미철	문소영	김남효



연중 제19주일

남희봉 벨라도 신부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9,9-11-13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렘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걸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9,1-5 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거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복음

마태오 복음 14,22-33 절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

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건넌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하고 말하였다.

엘리야와 베드로는 세상의 풍파와 풍랑 그리고 암초를 이겨내고 훌륭하게 하느님의 사업을 이룬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느님의 사업을 훌륭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놀라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시험하며 물 위를 건게 해달라고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응시하고 있을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갑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불자 예수님께 시선을 띠고 바람에 집중하자마자 물속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나 혼란 그리고 어둠이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집중하면 죽음도, 역경도, 고난과 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정부주의의 대모가 폭동으로 바뀌어 건물과 동상들을 파괴하며 성조기를 불태우기



도 했으며 이제는 성경까지 불태운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삶이 사회의 무질서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스나미처럼 밀려드는 세상의 암초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희망을 잃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의 지배를 서서히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밀려오는 세상의 암초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혹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하여도 우리

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 밀어닥치는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찾아 알아보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두움과 사회의 혼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은 어디에 계시까요? 기도 중에?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루, 하루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는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Pastor's Desk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연중 19주일 2020년 8월 9일 어느덧 입추도 지났습니다. 이제 말복도 곧 다가옵니다. 이렇게 절기는 여름의 끝을 알리고 있지만 더위는 가실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서 더 더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난히도 더운 올여름이 슬슬 기울기 시작한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마련한 식당 테이블에서 음식과 담소를 즐기는 모습을 봅니다. 언뜻 보면 팬데믹의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거리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유럽의 모습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당에는 오는 것을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면 팬데믹으로 자연스럽게 미사 참례를 귀찮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일은 좀 더 많은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여름의 더위가 지나면 더 많은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참례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만반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폭풍으로 야외 천막이 뜯어져서 다시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구조물은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 천막만 사서 씌우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혼자 오는 데 힘든 것은 언제나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폭풍에 심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여기저기 부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정전이 되고 인터넷과 전화가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8월 1일 유튜브 미사 때에 세례 견진을 받은 22명과 오전 건강 문제로 세례를 받은 3분과 함께 25명의 새 신자가 늘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다른 어느 때 보다 강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성당 주일 미사를 꺼려함에도 이번 새 신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인내를 갖고 세례 견진을 기도로 기다렸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이 세례와 견진을 받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새 신자들과 그들이 세례와 견진을 받을 때까지 교리를 가르치고 인도한 분들과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도와서 만들어 나갈 때 가장 훌륭하고 가치 있게 이루어집니다.

새 신자반도 그렇습니다. 교육자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옆에서 끌고 밀어주는 봉사자들이 필요하며 많은 신자들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일 크고 중요한 도움은 바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을 보았을 때 눈인사라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적어도 성당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것이 극과 극입니다. 같은 신자로 같은 성당에서 모인 같은 공동체 식구인데도 서로 개 닭 쳐다보듯이 무표정으로 지나칩니다. 눈이 마주치면 눈인사라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신자에게 눈인사는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고 생똥맛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참고 몇 번 하다 보면 곧 익숙해지고 오히려 내 자신이 더 큰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게 됨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오병이어로 남자만도 오천여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 후에 군중들을 손수 돌려보내고 제자들과 갈릴래아 호수 중간에서 회우하는 장면입니다.

호수 중간에서 제자들과 만난다는 말은 별반 큰일은 아니지만 실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으로 거친 풍랑 속을 걸어서 호수 중간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높은 풍랑으로 무서워하고 있는 데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해외 토크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가에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니 물 위를 어느 정도 뛰어가다가 결국 물에 빠집니다. 그 사람에게 말로는 속도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 역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또 빠르게 달리느냐가 얼마나 멀리 물 위로 뛰어 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에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더군다나 거센 바람으로 풍랑이 거친데도 태연히 걸어오십니다. 물리 역학을 뛰어넘은 현상에 제자들은 놀랄 뿐만 아니라 유령인가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며 안심시키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 주님이시거든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태오 14: 27-28)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을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 분석할 것은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지금도 거의 불가능하듯이 그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는 것도 우리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임을 증명하는데 자신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보는 예수님의 능력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해주시요.’ 예수님의 명령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이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의 가슴을 멎하게 합니다.

어떻게 오라는 한마디에 배에서 거친 파도가 치는 호수 위로 내려갈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은? 베드로 성인이 배에서 물 위로 내려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베드로 성인의 바보 같은 믿음이 부러워집니다.

비록 거센 바람에 놀라 물에 빠져 예수님께 믿음이 약하다고 꾸지람을 듣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베드로 성인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훗날 베드로의 인간적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고 교회의 첫 교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 성인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산되지 않은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팬데믹에서 구하고 새로운 날을 열게 할 것입니다.

열심한 믿음도 거센 파도에 놀라 흩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더 강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빠지고 허우적거리면서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 나갑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옵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정하상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의 정성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	9,895
주일 헌금	\$	9,116
감사 헌금	\$	320
총액	\$	19,331

둘째 주일 (8월)

연중 제19주일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호수에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과 역사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하게
 맞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세례/견진

세례자 명단

지난 8월 1일(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신자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수진 루시아, 계금옥 마리아, 고미녀 마리아,
 김연희 릴리안, 김지윤 티나 베로니카, 김채만 요
 션, 박금재 마리아, 박한춘 요셉, 심진자 줄리아,
 오운실 세실리아, 유영자 비아, 이민주 로잘린,
 이영주 미카엘라, 이원주 에스터, 이혁기 안젤로,
 임황빈 라파엘, 장용석 베드로, 전경혜 안나, 정
 경순 요안나, 조다솜 쟈마 (유아 세례), 진신숙
 테레사, 최민정 베로니카, 최신남 글라라, 최지성
 율리아노 (유아 세례), 최지용 루카 (유아 세례).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F
 (37.7°C)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 9 a.m. - 5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알림

이웃사랑 나눔의 실천 보고

4월(1차) : 총 19 가정과 나눔

- 현금 \$11,600
- 상품권 \$5,200
- 마스크 100장

7월(2차) : 총 17 가정과 나눔

- 현금 \$18,000
- 상품권 \$270
- 마스크 950장

합계 : 현금 \$30,550

- 상품권 \$5,470
- 마스크 1,050장

많은 단체장님과 교우분들께서 3월부터 6월까지 이웃사랑 나눔의 실천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님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목회-

2020-2021년 한국학교

2020-2021년 한국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으로 인해 2019-2020년 2학기 등록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8월 9일(오늘)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과 관련되어 질문이 있으시면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

본당 교우여러분들과의 더 가까운 소통과 본당 소식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 위하여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등록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 있는 **오픈 채팅**을 클릭, 검색창에서 ‘**성바로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를 검색 후 찾은 본당 오픈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그룹 채팅 참여**하기를 클릭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 참여방법에 문의가 있으신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유튜브(YouTube) 미사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주일날 어디서든 미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당 유튜브 채널은 “St Paul CHS 퀸즈성당”입니다.

구독(subscribe)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subscribe)은 무료입니다.

Net TV를 통한 미사 시청

미사 시간 : 매주 일요일 8 a.m.

케이블30 : 롱아일랜드 옵티멈(Optimum)

케이블48 : 버라이즌 파이오스(Verizon Fios)

케이블97 : 뉴욕시 스펙트럼(Spectrum)

온라인 현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현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현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현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현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현금 페이지 이용 - 저희 퀸즈 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현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현금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현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 카드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8/3 (월) 김기훈 파스칼 생일 축하 미사 (김윤자 소피아)
박계학 요한 가족 감사 미사 (박계학 요한 가족)
모든 성인의 어머니 Pr. 단원들 건강 기원 미사 (익명)
김기훈 마이클 생일 축하 미사 (김윤자 소피아)
가정의 영육 건강 위한 미사 (박수정 마리아)
조카 차 태영, 남편 한중옥 스테파노 미사 (차 베로니카)
대자 최로렌스 건강 기원 미사 (구 크리스티나)
백부숙 아네스 미사 (백 글라라, 테레사)
이아브라함의 건강 회복 기원 미사 (이 마리아)
서재현 안드레아 건강 회복 기원 미사 (바인 CLC)
이이순 안나 영혼 안식 연미사 (이병원 요셉, 김정옥 마리아)
오성현 데이빗 영혼을 위한 연미사 (오 테레사)
이봉옥 카타리나 천상 행복 연미사 (익명)
이중석 다미아노 연미사 (박병희 실비아)
임춘자 테레사, 이동면 연미사 (박병희 실비아)
이병만 토마스, 이병수 바오로 연미사 (박병희 실비아)
방정숙 마리아 연미사 (익명)
박영숙 할머니 영혼을 위한 연미사 (이혜은 사비나)
- 8/4 (화) 대자 최로렌스 건강 기원 미사 (구 크리스티나)
백부숙 아네스 미사 (백 글라라, 테레사)
오성현 데이빗 영혼을 위한 연미사 (오 테레사)
돌아가신 모든 성인의 어머니 Pr. 단원들 천상행복 연미사 (익명)
박난자 마리아, 이희창 마르코 영원한 안식 연미사 (김인경 미카엘라)
박수경 스테파노 연미사 (박현경 로사)
방정숙 마리아 연미사 (익명)
강동훈 요한 연미사 (지명은 아네스)
김복선 모니카, 안주식 야고보 연미사 (안영옥 세실리아)
양재인 분도, 서순예 마리아 연미사 (안영옥 세실리아)
- 8/5 (수) 부모님 미사 (신영수)
대자 최로렌스 건강 기원 미사 (구 크리스티나)
백부숙 아네스 미사 (백 글라라, 테레사)
서재현 안드레아 건강 기원 미사 (김정숙 마리아)
최명진 로렌스 건강 기원 미사 (김대성 안드레아)
이중민 베드로 건강 기원 미사 (이혜은 사비나)
박한준 요셉, 박금재 마리아 세례 축하 미사 (박상수 안드레아, 성광자 글라라)
최명진 로오렌스 감사 미사 (최 로오렌스, 세실리아)
오성현 데이빗 영혼을 위한 연미사 (오 테레사)
아버지 이중석 다미아노 1주년 연미사 (이호)
황봉옥 카타리나 연미사 (이 크레센시아)
이태형 레오 연미사 (이 크레센시아)
김경조 요아킴 영원한 안식 연미사 (요안나)
황대성 바오로 연미사 (황계숙 테레사)
최애순 연미사 (최신남 클라라)
- 8/6 (목) 김영희 로사 건강 미사 (이현구 요셉 가족)
민석, 민경, 미선 자녀들의 감사 미사 (유옥경 스텔라)
백부숙 아네스 미사 (백 글라라, 테레사)
한대회 요셉 미사 (한성숙 테레사)
아영, 우영, 예릭 자녀들 감사 미사 (최 로오렌스, 세실리아)
구크리스티나 대모님 감사 미사 (최 로오렌스, 세실리아)
대자, 대녀들 가정 감사 미사 (최 로오렌스, 세실리아)
브린, 가비 외손녀들 감사 미사 (최 로오렌스, 세실리아)
수도자 글로리아 마리 은영 미사 (최 세실리아)
서재현 안드레아 건강 회복 기원 미사 (바인 CLC)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 건강 감사 미사 (이 엘리사벳)
이토마스, 변세실리아 건강 감사 미사 (이 엘리사벳)
이현덕 해외근무 영육 건강 미사 (이 엘리사벳)
오반수 프란치스코 건강 기원 미사 (임선희 세레나)
최명진 로오렌스 건강 기원 미사 (김홍순 테레사)
최명진 로오렌스 건강 쾌유 미사 (김인옥 스테파나)
김정옥 마리아 건강 기원 미사 (김홍순 테레사)
김동욱 안드레아 감사 미사 (김홍순 테레사)
오성현 데이빗 영혼을 위한 연미사 (오 테레사)
강혜란 헬레나 연미사 (가족)
강동훈 요한 연미사 (지명은 아네스)
오춘득 안나 영원한 안식 연미사 (최 요한, 카타리나)
- 8/7 (금) 김이안 안토니오 미사 (김 로사)
오승진 루파나 미사 (김 로사)
오원진 사비나 미사 (김 로사)
백부숙 아네스 미사 (백 글라라, 테레사)

- 8/7 (금) 김 토마스 미사 (한성숙 테레사)
성직자들을 위한 미사 (성소후원회)
성소자들을 위한 미사 (성소후원회)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성소후원회)
홍진우 요한 미사 (익명)
강미숙 카타리나 미사 (익명)
홍혜진 미카엘라 미사 (부모)
홍예진 세실리아 미사 (부모)
홍성택 프란치스코 미사 (부모)
김상균 다니엘 신부님 건강 미사 (익명)
김 다니엘 미사 (김영진 가족)
최명진 로오렌스 건강 쾌유 미사 (정인숙 벤첸시아)
최명진 로오렌스 건강 쾌유 미사 (김수찬 요한)
오성현 데이빗 영혼을 위한 연미사 (오 테레사)
김명진 바오로 2주기 연미사 (베이사이드 5반)
김명진 바오로 2주기 연미사 (김홍자 로사)
김명진 바오로 영혼 연미사 (한 세실리아)
황갑수 미카엘 연미사 (황계숙 테레사)
박순희 안나 할머니 영원한 안식 연미사 (하재원)
박순희 안나 할머니 영원한 안식 연미사 (장혜숙 스텔라)
이승희 형제 영혼 연미사 (임정순 테레사)
친정부모님 호관성 요셉, 호태호 마리아 연미사 (홍정성 카타리나)
오춘득 안나 연미사 (김영진 가족)
이정산 토마스 연미사 (김수찬 요한)
- 8/8 (토) 백부숙 아네스 미사 (백 글라라, 테레사)
한선희 크리스틴 미사 (한성숙 테레사)
문혜옥 로사리아 생일 감사 미사 (임윤일 보나)
최명진 로렌스 건강 기원 미사 (임혜경 루시아)
조정애 마리아 연미사 (이홍재 가족)
우영 세실리아 연미사 (이홍재 가족)
오성현 데이빗 영혼을 위한 연미사 (오 테레사)
이정산 토마스 연미사 (이홍재 가족)
강동훈 요한 연미사 (박현경 로사)
강동훈 요한 기일 연미사 (손무 방지거)
부모님 영원한 안식 연미사 (김기원)
고기연 토마스 연미사 (고 세실리아)
강동훈 요한 연미사 (지명은 아네스)
정명태 연미사 (김 마틸다)
신은식 영원한 안식 연미사 (홍정성 카타리나)
최애순 연미사 (최신남 클라라)
- 8/9 (일) 최명진 로렌스 건강 기원 미사 (임혜경 루시아)
최명진 로렌스 건강 기원 미사 (한정진 부부)
윤은식 요셉, 박경희 골롬바 가정 미사 (세실리아 대모)
청우회 회원 가정 미사 (신학식, 신영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미사 (신학식, 신영순)
로사리오회원들을 위한 미사 (로사리오회)
김장권 대건 안드레아 가정 감사 미사 (김옥심 엘리사벳)
Jean Bak 건강 회복을 위한 미사 (백든현 벨라도, 백 울리안나)
이정산 토마스 영원한 양식 연미사 (이병량 부부)
김우영 세실리아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박효종 라우렌시오, 박월임 헬레나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오성현 데이빗 영혼을 위한 연미사 (오 테레사)
윤복림 연미사 (김은지 루시아 가족)
돌아가신 연령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연령회)
김기욱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김윤자 소피아)
김지환 필립보 영원한 안식 연미사 (김윤자 소피아)
이성순 요세피나 연미사 (가족)
김선용 해론 연미사 (한성숙 테레사)
박재민 베드로, 박안나 연미사 (원유옥 안셀모)
원재현 베드로, 여상현 마리아 연미사 (원유옥 안셀모)
오춘득 안나 영혼 안식 연미사 (신 로사)
김지환 필립보 영혼 안식 연미사 (신 로사)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God In Whispers And Waves

< 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Where would you expect to encounter God? At the top of a high mountain or in a starlit sky? Today's readings inspire us with divine wisdom that God is often found in the least likely places. The prophet Elijah, fasting in a cave, was directed to go to the entrance of the cave because the Lord was passing by. But the reading surprises us because God was not in an earthquake nor in a mighty wind, but rather in a soft whisper, causing Elijah to hide his face. Who could imagine the God of all universe being revealed by a gentle whisper? Paul describes how Jesus, the Messiah, came into the world through the most unlikely people: the Jews. They were not a mighty empire nor have a strong army, yet from them God gave the world the Law, the prophets, the worship and, through the Virgin Mary, the Messiah.

The gospel tells the dramatic story of the disciples attempting to cross the sea of Galilee at night, when their boat was battered by strong winds and high waves. In the dark and fearing for their lives, they see what they thought to be a ghost. Jesus calms them with, "Fear not. It is I." Good old impetuous Peter volunteers to go to Jesus if called. Of course, the fierce winds and fearful waves, not to mention the impossibility and foolishness of what he was attempting to do, caused Peter to realize he was in way over his head—literally. Jesus reaches out to him and once Peter refocuses on the one calling him, he too walks on water. But that's not all. Back in the boat, Jesus calms the storm. Who has mastery of wind, waves and whispers but God alone? Jesus is ready to encounter us in every situation, provided we focus on him and recognize his presence all around us.

Announcements

19th Sunday in Ordinary Time

We meet the Lord in the strangest places. Elijah spent the night listening to the wind, feeling the earthquake and surrounded with fire, but the Lord was not in any of these. He came in a gentle breeze. We would like great events for meeting our God, but most often he stirs our hearts and minds very gently. If we listen, we encounter the Lord. Like Peter, we walk toward the Lord.

2020-2021 Korean School Registration

Classes are conducted online only for the 2020-2021 school year. Students who have enrolled in the Spring semester of 2020 will accept to register for the Fall semester.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Matthew Choi.

Registration due : Today, August 9th

Contact : Matthew Choi (917) 683-4216

2nd Sunday in August

"Congratulations!"

Lilian Kim, Via Young Ja Cho, Jemma Dah-Som Cho, Veronica Minjung Choi, Julian Jisung Choi, Luke Jaden Jiyong Choi, Joseph Han Chung Pak, Maria Kum Jae Pak, Joseph Chae Man Kim, Joanna Kyung Soon Jung, Roseline Minjoo Lee, Anna Kyunghye Jun, Rafael Hwang Bin Im, Lucy Soo Jin Kang, Veronica Tina Kim, Maria Jin Yu Gui, Julia Jin Ja Sim, Teresa Shin Sook Jin, Peter Yong Suk Jang, Michaela Young Ju Yi, Cecilia Woon Sil Oh, Maria Mi Nyu Ko, Angelo Hyeok Gi Lee, Clare Shin Nam Choi, Esther Wendy Lee received the baptism on the last Saturday, August 1st.

Prohibition of Use of Kneeler

Inside the church, you can NOT use the kneeler in the mass, or when you pray. Please cooperat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all.



SAFETY PRECAUTIONS FOR RESUMING MASS

Please observe the following important precautions listed below when attending Mass.

Notes on Mass Times

- There is 7 a.m. worship during weekday mass.
- There is no evening mass on Wed, Thu, and Fri at 8:30 p.m.
- Evening mass time for Saturday has been changed from 8:30 p.m. to 8 p.m.
- Evening mass time for Sunday has been changed from 6 p.m. to 5 p.m.
- Sunday 9:30 a.m. mass will remain mainly English-speaking.
- If you cannot attend church on Sunday, please watch the mass on the church's YouTube channel "St Paul Chs 퀸즈성당" (Korean mass only).
- The church's doors are open daily at 6:30 a.m. for weekday mass.

Notes on Mass Etiquette

- Be sure to wear a mask when you go up to receive communion. There will be no Eucharist on the tongue. Please wait for the priest to drop the Eucharist on the palm of your hands.
- Do not use the kneelers inside the church.
- There are no exchanges of peace greetings during mass for the time being.
- Please say your responses in a low voice so that they cannot be heard by the person next to you.
- Offerings will be placed in the offering boxes at the same time that you come up to receive communion.
- There will be no confession before Mass.
- Those who need a confession can make an appointment and receive the sacrament outdoors.
- While funeral masses will be performed, there will be no funeral rites.

Notes on Rites of Worship for Mass

- You may only use the church's front doors when entering.
- Volunteers must check you for fever at the entrance before you enter the church.
- Hand sanitizers must be used when entering the church.
- You must keep your mask on at all times, from the moment you enter the church to when mass is fully ended.
- You may only sit in seating areas marked with blue tape.
- Only family members or those who have driven together in the same car can sit together without social distancing (6 feet).
- You must leave the church immediately after mass.
- When leaving, use only the side doors on both sides of the church.
- We will not be using the shared daily missal and song books during mass.
- Elevators are not allowed for the time being.
- If you suspect that you have coronavirus or have a cold, cough, or fever, please stay at home and participate in the online mass instead.
- Please refrain from using the church toilets as much as possible. If it is absolutely necessary, please use the toilets located in the education center.

단체모임 / Group Meetings

사목회	매달 마지막 수요일 9 pm	파니퍼갓 성가대	일요일 9:30am	풍트레이	매달 제1주일 1 pm	
단체강	매달 제1수요일 9 pm	한울집 성가대	금요일 8:30pm	성체회	매달 제2주일 9:30pm	
구역, 반장회의	매달 제1화요일 8 pm	Cherubim Choir	Sunday at 9:10am	영소우현회	매달 제4주일 12:30pm	
산사회	매달 제2화요일 11 am	Juvin Youth Orchestra	Friday at 7:30pm	성령기도회	매주 목요일 8 pm	
요성회	매달 제2화요일 11am 미사후	Legis Teens Choir	Sunday at 8:30am	어머니 연합회	매달 제2주일 11 am 미사후	
모사리오회	매달 제2주일 11am 미사후	성년강화회 매달 마지막 토요일 3pm	제이오(성가대)	일요일 4 pm	간호사회	매달 제4주일 12:30pm
성서회	매주 목요일 9 pm		소금(찬대)	일요일 5 pm	한국학교	토요일 9 am - 1 pm
베드오회	매달 제3목요일 8 pm				생활 상담소	매달 제24주일 12:30pm
차장회	매달 제3토요일 7:30pm	High School Youth Group	Friday at 8 pm	찬화회	매달 제1토요일 11 am	
내건회	매달 제3토요일 7 pm	교회시중	매달 제3주일 2 pm	우리아	매달 제4주일 2 pm	
연합회	매달 제1주일 12:30pm	303	매달 제2주일 12:30pm	Cornerstone	2 nd Sunday after 9:30 Mass	

촬영촬영, 특목사건, 여가인
여권사진, 비디오 촬영, 역작

사진관

718.886.1677
40-19 159St. #B1 Flushing

년 **가** **장** **난**

순 한국식 중화요리
이 벨라도

718-225-1210
201-07 Northern
대. 수 전화에 관해 7655에 관해

플러스 약국
PLUS DRUGS

무모주사/무모병원 대상오진/세방
입문 각종보험/각종의료기기
신제품/10% 할인에 드림
약 이고보 / 주석 ID: plusdrugs

718-352-1234
209-31 Northern Blvd

장례보험

에어폰 살어 마지막 대우

오 데이비드

718-908-0733

S. Pa.
Yvon Art Soco.
성 박호표

에원아트 스튜디오

당인 24년 2000년 12월 27일
오 데이비드
718.908.0623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박의진 글롬바노
공인 장례사
(516) 780-3047

JUNK EXPRESS

쓰레기 수거 및 철거

각종공사 폐기물
목조 스키장 쓰레기
비즈니스 폐업정리 등 각종 폐기물
양물 무로 잔여양물 처리 가능

(718) 415-2004

다보안경원
DABO EYEWEAR

뉴욕최고의 안경점

저렴한 가격
최고의 서비스
(성당 신자분 우대)

718-321-1212
OXSENNA 지점
718-358-9595
Union지점

스마일 약국
SMILE PHARMACY

Free Delivery

(718) 358-3800
(718) 358-1212

150-07 Northern Blvd. 11354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192-27 Station Rd
Flushing, NY 11358

센츄리 홈즈
부동산

무려심, 풍아일랜드
주목, 콘도, 오피스

박난기 (캐서린)
917-623-0007

Danny Choi
골프 레슨

미국골프협회(USPGA) 자격
20년 경력의 프로골프 코치
20년 경력의 프로골프 코치

718-757-2295
Spring Rock Golf Center
217 Denison Ave New Hyde Park

노던 골프

유명 Brand 골프클럽판매
그림 교환, 클럽 수선

718-353-9800
156-44 Northern Blvd.
(H Mart Mall)

FULTONEX REALTY
부동산

당인, 주, 비즈니스, 케네디 센터
한국어, 중국어, 영어, 동등

레슬 리
718-666-5751
lrl@ful123@gmail.com

유니온 약국
718-961-6010

무려심, 풍아일랜드
주목, 콘도, 오피스

박난기 (캐서린)
917-623-0007

제일 장의사

한용호 토마스

제일의 가격
제일의 섬김
(718)
404-5252

글로벌 에터미
atom (미국 연인대 마라톤)

2007년 1월 16일 - 18일 (3일간)
(잠대, 점심, 잠대 가격)
개인/단체 선물 상담

917-930-1065
148th St 34th Ave

AC 약국 (노던 154개)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
대부분의 약품, 개인 상담
각종 백신, 생화학
OTC, 알콜, 향신료, 건강식품
오일, 화장품, 의약품

154-16 Northern Blvd.
718-886-0060

결혼 정보 회사
듀오 USA

한국 여느러, 한국 서취
알수 수 있는 무료
USA에서 신혼을 만드세요.

201-242-0505 (NY)
세실리아

AT&T Bell Blvd

전화에 관한 모든 문의

이경지 최덕도
347-989-7399
38-27 Bell Blvd.

제일의 가격
제일의 섬김
(718)
404-5252

RX 쏘아 약국
(OX PHARMACY'S PHARMACY)

각종 의료기, 정보 제공
한국어, 중국어, 영어, 동등
건강식품, 알콜, 향신료, 건강식품

TEL. 917-563-7502
150-1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대우 연초 및 무선기)

365 TV LIVE
한국방송

한국 라디오 방송
(50개 채널)
인터넷만 있으면 OK!

718-908-1422
718-594-0704

피어노/오카리나
방문 개인 레슨

위미, 임시, 음악, 성악
피아노, 오카리나
각종 기타 및 레슨 관해 22년

617-306-6434
카톡: misun117

AC 약국 (노던 154개)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
대부분의 약품, 개인 상담
각종 백신, 생화학
OTC, 알콜, 향신료, 건강식품
오일, 화장품, 의약품

154-16 Northern Blvd.
718-886-0060

효안 한의원
한약, 침, 고령사고 보형차리
(718) 353-6702
(718) 600-5416
142-11 38th Ave.
Flushing, NY 11354

최윤승변호사
이민법 / 상법
부동산법
(718)460-2512
34-26 Union St. Suite 3F
Flushing, NY 11354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917) 952-8780
(516) 504-0066

아오레화장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전문
(718)279-8400(Bayside)
209-17 Northern
(718)939-2932(Flushing)
39-06 Union Street

삼원각
H420 노인 후러싱
연회석 완비
방탈탈, 돌잔치, 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718)445-8500

부부 한의원
원장 박노태 요셉
연회석 완비
718-888-1522
165-20 Northern Blvd. Fl.

영양가득 · 가격의 2배
뉴-마트
동양 · 서양 그릇사리
▪ 반찬, 음식 ▪
▪ 고기, 생선 ▪
▪ 과일, 이채 ▪

공인회계사 진명
개인 및 법인회계사리
회계감사 / 세무조정
세무신고
(718)445-6400
36-22A Union St #202

맹큐 치과
일반 치과
임플란트 전문 치과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노인 장애인에게 할증리혜택 근거

사랑가득
중앙 장모사
대표: 이봉호(이계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30년전
1988년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머
뉴욕 · 뉴저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대표: 718.353.2424
뉴욕 · 뉴저지 모든 지역점 문의

조진동 변호사
노년 154가 케이스 은행폭
718-353-2699

뉴마트 전자음식 전문점
718-344-5542
718-428-4748
232-32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대성 이발관
40-140 150 St.
역파 골목
현영경 마태오
(718) 913-9736

3대 여여 명품보석상
임보석
GIA 증명서만 증명해 100%
명품 보석 판매전문점
(718) 463-3313
36-24 UNION ST.
WWW.IMBOJEWELRY.COM

PAUL HO PAIN CLINIC
고통한 병환 병환
고 경 현 (바오로)
최고의 의료 기술과
최첨단 의료 장비 완료
한양 마트 옆 150PL
718-445-4370

HOPE AGENCY INC
▶ 메디케어 상담 ◀
▪ 사건제 ▪ 건물 ▪ 주택 ▪ 자동차 ▪ 생명 ▪ 건강 ▪ 건강
John 917-985-8888 Mon 917-983-8881
Igor 917-403-0881 Wilson 917-374-4487
Insurance Producers · NY NJ CT · 1982
희망보험 718-961-5000

공보석
고급 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컴퓨터 판매 및 수리
프로그래밍, 웹, 안드로이드 수리
같이 구매의 값치
(718)353-0911
40-13 159th St Suite B

이한식재통전문병원
공인된 치과, 정형외과
신경 재활 등 7개 진료
7개 레진과 치과신경
718-224-1600
140-21 32th Ave 플러싱

아카디아 학원
엄시 전문
사립고, 특목고 입시
ISEE, SSAT, SHSAT
대학 입시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Akadia.institut@gmail.com

우리 어덜트 데이케어
wooriadultday.com
(718)709-4747
무료 아침 점심 식사, 차량
소셜 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제공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소지자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스프링 골프
골프 클럽 · 골프 외류
액세 사리
(718) 224-4444
221-02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초롱 냉동
냉장고, A.C, 세탁기
건조기 등 일괄수리
(상업용 가정용)
718-353-0944
40-13 159th St Suite B

이덕규 건축설계
비대고 400, 공적까지 건축기술사
건축, 인테리어, 조경, 조경
718-353-8137
151-01 노던 RDC 플러싱

신성호 건축사
194-02 노던 2층
(718) 428-2882

후러싱 꽃집
결혼·생일 축하 꽃
가족행사 화환·하문·장례화환
718-463-9055
147-20A Northern Blvd
www.flushinggardenforist.com

예인 한의원
명품 공진단 경옥고
천한경 한국산 한약재 처방
무치섬 디타이노
(718)539-5161
142-36 38th Ave 플러싱

센터케어 무료
부정부 보조 보험 신청
기록·진짜 2명 분의
929-253-8540

MOTIVE
전부 환불이
가능한 렌탈
718 767 2124
www.motive.com

KCS
KCS 공공보건부
718-791-2197
718-886-4126
간병서비스, 재활, 양노 교육
유망사업단 및 교육, 공인사업
건강보험 등록, 통장 관리

예인 한의원
명품 공진단 경옥고
천한경 한국산 한약재 처방
무치섬 디타이노
(718)539-5161
142-36 38th Ave 플러싱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t. Paul Chong Ha-Sang Roman Catholic Church
32-15 Parsons Boulevard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676 | Fax: 718-321-7005 | Web: StPaulQueens.org | Email : Office@stpaulqueens.org

19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9, 2020 (Year A) No. 2486

Entrance Antiphon

Look to your covenant, O Lord,
and forget not the life of your poor ones for ever.
Arise, O God, and defend your cause,
and forget not the cries of those who seek you.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Book of Kings
1 Kings 19:9a, 11-13a (115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9:1-5

Communion Antiphon

O Jerusalem, glorify the Lord,
who gives you your fill of finest wheat.



“Lord, save me!”

Responsorial Psalm



Lord, _ let us see your kind - ness, and _ grant us your sal - va - tion.

Universal Prayer

- ◆ For the priests and religious leaders, especially Pope Francis: that the Holy Spirit protects and helps them as the church goes through this time of sickness, social upheaval and economic uncertainty.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 ◆ For all people whose faith has been shaken by scandal, injustice, disappointment or someone's death: may the Holy Spirit help our faith become stronger through this trial. Let us pray to the Lord. ☉
- ◆ For those looking for a faith, looking for someone to believe in: that they may find Jesus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 ◆ That we be alert to the approach of the Lord, who will come, as he did to Elijah, not in a hurricane, an earthquake, or fire, but in a tiny whispering sound. Let us pray to the Lord. ☉
- ◆ That the faith in the constant presence of Christ keep us unafraid in the personal storms of our lives: especially when we are facing economic uncertainty and pandemic fears. Let us pray to the Lord. ☉
- ◆ That our faith be alive with good works without which it is dead. Let us pray to the Lord. ☉